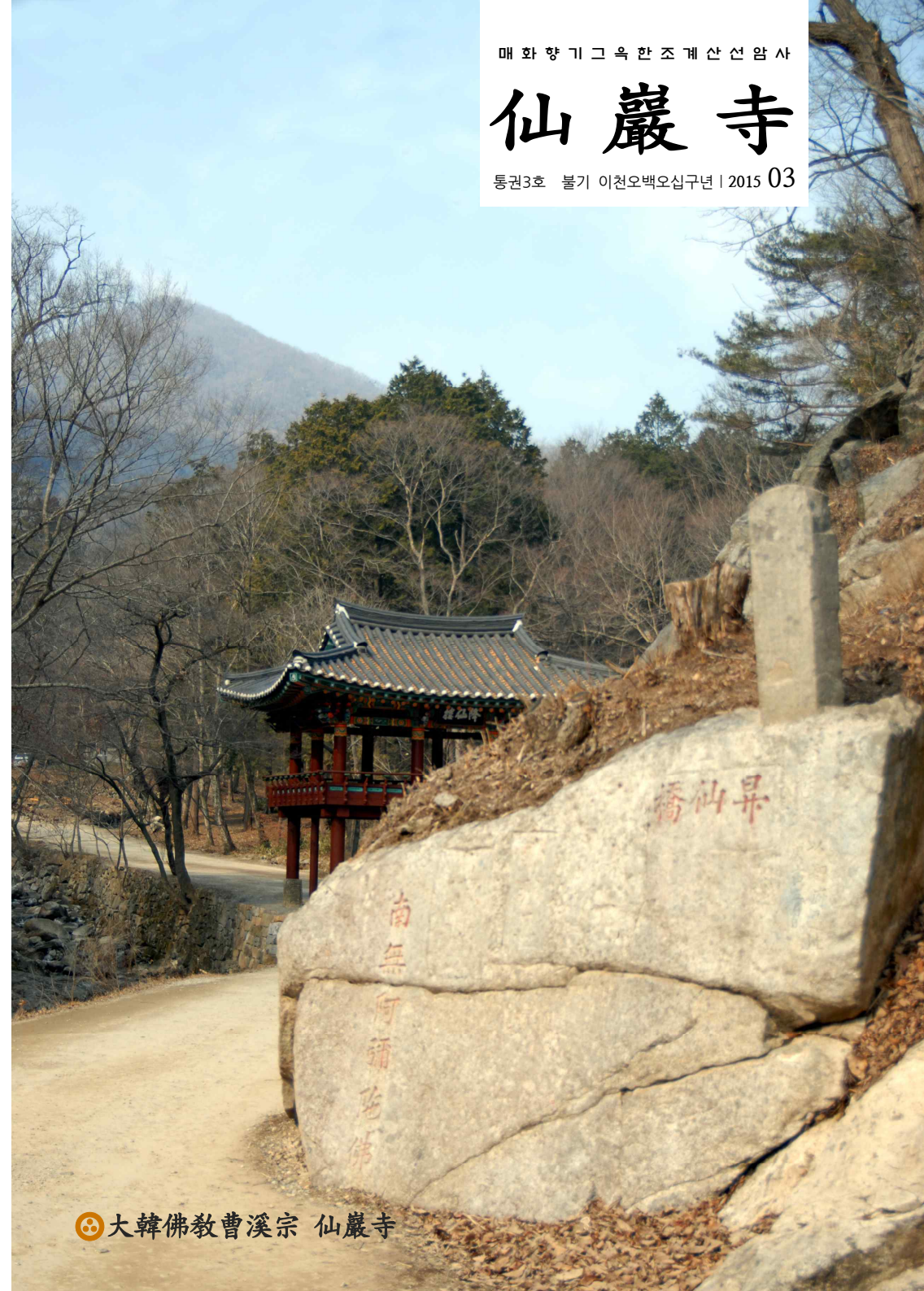


매 화 향 기 그 옥 한 조 계 산 선 암 사

仙巖寺

통권3호 불기 이천오백오십구년 | 2015 03



선암사의 선지식



침광 현변 (枕肱 懸辯 1616 - 1684)

조선시대 중기 수행자들의 지표가 될 정도로 철저한 정진을 펼치며 수행가풍을 크게 진작시킨 선지식 침광현변스님은 전라남도 나주에서 태어났다. 스님의 속성은 윤(尹) 씨, 자는 아눌(而訥), 법호는 침광(枕肱), 법휘는 현변(懸辯)이다. 13세 나이로 출가해 보광 건우선사, 서산대사의 수제자인 소요 태능선사, 송계 원취선사 등과 당대 고승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침광’이란 법호가 말해주듯 일생동안 팔꿈치를 베고 잠을 잔 스님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스님은 “교를 버리고 참선하라(放敎參禪)”라며 참선의 중요성을 역설했지만, 스님의 저서 <침광집>에도 잘 나타나 있을 만큼 교학에도 뛰어났던 것으로 전해진다. <침광집> 원 목판본은 스님이 주지소임을 맡으며 주석했던 순천 선암사에 소장돼 있다.

매 화 향 기 그 읍 한 조 계 산

仙巖寺

선 암 사

www.선암사.org

월간 『仙巖寺』 불기2559년 통권3호 2014년 02월 28일 발행

선암사의 선지식	침광 현변	2
주지스님 법문	삼보에 귀의합니다 - 부처님은 누구인가 -	4
기초교리 강좌	부처님의 생애(2) - 비람강생(毘藍降生)	6
조계산 편지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노력	8
선암사의 성보문화재	선암사 불조전 53불도	10
이달의 풍경	尋春	12
특 집	선암사 신도기본교육 실시	14
신도탐방	지혜 김보현 불자	16
사찰건축의 이해	사찰의 구조 - 전각	18
선암사 소식	2월 행사 및 3월 예정행사	20
신도회 소식	사랑방 이야기	22
선암사 안내	선암사 안내 - 신도기본교육, 月刊 仙巖寺 정기구독	23



사진 전 우

표지설명
봄이 오는 길목
긴 겨울을 밀어내면서
봄이 선암사에 오르기 시작했다

발 행 일 2015년 02월 28일
발 행 인 법원(法願)
발 행 처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편 집 장 김희철
편집위원 진우 성궁 현광 허수길

주 소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전화번호 061) 725 - 5108
F A X 061) 753 - 5108
홈페이지 <http://선암사.org>

삼보에 귀의합니다

- 부처님은 누구인가 -



선암사 주지 법원스님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법회부터 삼보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 집단, 이 세 가지를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인 삼보(三寶)라고 합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의계'는 '오계'와 함께 불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받아야 하는 계율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삼보 중에 첫 번째인 부처님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과연 누구이며 어떤 분인가? 인도에서는 진리를 깨우치고 통달한 사람을 '붓다'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뭇다'라 합니다. 부처님께는 '여래십호(如來十號)'라 해서 열 가지 명호가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응공(應供)'은 마땅히 공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조어장부(調御丈夫)'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들을 깨우치고 조율해내는 스승, '무상사(無上師)'는 위로 더 이상 높은 스승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고사를 하나 들려 드리겠습니다.

옛날 시골에 신심이 훌륭한 처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처사님은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절에 가면 부처님이 한 분만 계시면 좋겠는데 부처님이 많은 거예요. 어디에는 지장보살님이, 어디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또 관세음보살님, 미륵불, 노사나불 부처님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왜 이렇게 부처님이 많은가?'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가끔 다니는 암자의 노스님 법력이 대단하다는 소리를 듣고 여쭙러 갑니다. '왜 이렇게 부처님이 많은지, 어느 부처님이 진짜인지 따져 물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제대로 해주면 그 절에 열심히 다니고 아니면 그만 다니기로 마음을 먹고 찾아갔어요. 주무시다 말고 일어나신 노스님께 따져 물으니 지금은 이야기 해줄 수 없으니 저녁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처사는 의심을 했지만 확인은 해야 하니깐 일단은 저녁에 다시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노스님은 저녁이 돼서야 시자에게 조금 있다가 누가 와서 물어보고 성가시게 할 테니 오기 전에 법당에 그릇이란 그릇은 내다가 마당에 넣어놓고 물을 다 채워놓으라고 시킵니다. 시자는 영문도 모르고 해가 저서 캄캄한 밤에 내다 놓으라고 하니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 큰 스님 말씀이라 그대로 했지요. 처사가 암자에 오르다 보니 캄캄해 졌는데 마침 보름달이 떠서 달을 길안내 삼아서 암자에 도착하게 됩니다.

처사가 스님을 뵈러 가는데 그릇들이 마당에 짝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에 뭐가 있나 하고 보니 그릇에 전부 물이 채워져 있는데 거기에 달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처사님이 평소에 수행을 열심히 한지라 그 자리에서 딱 깨닫게 됩니다.

"아!!! 부처님의 수가 많은 까닭이 이런 거구나."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앞에서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은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 그 자체를 '부처'라고 합니다. 진리 그 자체로 부처님은 하나인데, 중생들의 바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모습과 형상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화신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중생의 바람과 근기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천만억 화신부처님으로 몸을 나타내신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부처님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달은 하난데 대서양에도, 태평양, 인도양, 한강, 낙동강에도 똑같은 달이 떠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보든지 같은 달이지만 천개의 강에는 천개의 달이 떠있지요.

천강유수 천강월(千江有水 千江月)

이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처님의 삼신(三身)사상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진리 그 자체로서의 보름달을 법신(法身) 부처님이라고 하고, 땅위의 그릇에 떠있는 달을 화신(化身)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보름달이 땅위의 그릇에 비추려면 달빛이 없으면 비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달빛에 해당하는 것이 보신(報身) 부처님입니다. 원래 진리 그 자체로서의 부처님은 법신불 하난데 달빛의 타고 내려오듯이 우리 중생들의 기원과 바람에 해당하는 달빛이 보신불, 그런 기원과 바람에 의해 몸을 나타내신게 화신불입니다.

앞으로는 어느 부처님을 뵈도 '법신불께서 무수히 많은 중생들의 바람으로 모습을 나타내신 화신불이구나.' 라고 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표적인 화신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행하고 믿는 종교입니다. 어떤 특정 신에게 기대고 의지하여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진리를 터득한 분을 부처님이라 하고 누구든지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서 함께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불교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전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자님들 우리 모두 성불 합시다. ☺

불기 2559년 1월 정기법회 법문 중에서.....

부처님의 생애(2)

비람강생(毘藍降生)

-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시다 -

편집실

카필라국은 히말라야 남쪽 기슭의 초목 지대에 자리한 조그만 왕국으로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농업국이었다. 카필라국의 정반왕은 석가족의 후예로서 용감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으나, 부인인 마야 왕비가 늦도록 슬하에 왕자가 없자 걱정이 쌓여갔다. 그러던 어느 날 왕비는 커다란 눈처럼 하얗게 빛나는 여섯 개의 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가 도솔천에서 내려와 마야왕비에게 다가와 엮드려 절을 하고는 왕비의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꿈 이야기를 들은 당시의 많은 예언가들은 “성인이 태어나실 꿈이다. 왕자님이 태어나실 꿈이다.”라고 하였으며, 온 나라 백성들도 장차 태어날 왕자를 생각하면서 기뻐하였다.

모든 백성들의 기대 속에 파스한 봄이 되고 왕비의 산달이 다가 왔다. 마야부인은 해산 일이 다가오자 당시의 관습에 따라 해산을 하기 위해 친정인 코올리성을 향해 길을 떠났다. 왕비를 태운 가마 행렬이 룸비니 동산에 이르자, 때마침 예쁜 꽃들이

만발하였고, 온갖 새들이 지저귀며 왕비를 맞았다. 왕비는 무우수(無憂樹)나무의 신비스런 향기에 끌리어 나무에 가까이 다가갔다가 갑자기 산기를 느꼈다. 왕비는 침착하게 장막을 치도록 하고 오른손을 뻗어 무수우 나무의 동쪽 가지를 잡고 아기 왕자를 낳으니 그 날이 바로 사월 초파일이다.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일어나 동서남북으로 일곱 걸음을 걷고 사방을 둘러보며 한 손으로 하늘을,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사자후를 토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모든 세상이 고통 속에 잠겨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

여기서 태자가 외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깨달음을 구하는 모든 중생

하나하나가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지혜의 외침, 생명 존엄의 선언이다.

태자의 발자국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아홉 마리용이 나타나 오색의 감로수로 태자의 몸을 씻어 주었다. 땅은 은은히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는 가운데 천신들이 내려와 차례로 예배드리며 이 세상 가장 존귀한 분의 탄생을 축하하였다.

를 묻자 아시타 선인은

“왕자님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훌륭한 상호(相好)를 갖추고 태어났습니다. 왕자님은 훗날 성장하셔서 전 인도를 통일하여 덕으로써 다스리는 전륜성왕(轉輪聖王)이 될 것이요, 출가하여 수행자의 길을 걸으시면 진리를 깨달아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제가 늙어 부처



비람강생상

증심사 대웅전
일화 정경문 作

정반왕은 태자의 이름을 '고타마 싯다르타'라고 지었다. 왕자의 앞날이 마음먹은 대로 만사형통하라는 축원이 깃든 이름이었다. 태자가 태어나자 서른두 가지의 서응(瑞應)이 생겨났는데 이는 부처님의 탄생으로 인해 풍요롭고 맑은 세상이 이루어지고, 죽음의 존재가 생명을 회복하며, 감추어졌던 가치와 진리가 나타나고, 해와 달이 멈추고 같이 시간이 한계 즉, 무상을 초월하는 일대 전환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태자가 태어난 지 닷새가 되자 히말라야로부터 아시타 선인이 내려와 태자를 뵈고자 했다. 선인은 태자의 얼굴을 살펴보고 난 후 슬피 우는 것이었다. 정반왕이 연유

님의 출현을 뵈 수 없는 것이 한스러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라 하였다.

정반왕은 싯다르타 태자가 장차 자신의 왕위를 계승하여 훌륭한 왕이 되기를 바랐다. 훌륭한 아들을 얻은 기쁨도 잠시 일이었다. 태자를 낳은 지 7일 만에 어머니 마야 부인이 세상을 떠나니 어머니를 잃은 태자는 당시의 풍습에 따라 이모인 마하파자파티의 양육을 받으면서 총명하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성장하였다.

그리고 정반왕은 아시타 선인의 예언에 딸라 아들이 출가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태자의 성 밖 출입을 막고 호화로운 궁궐에서만 머물게 하였다. ☹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노력

40년 뒤틀린 역사를 바로 세우고저...

선암사 주지 법원

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주지 법원입니다.

조계산의 양대 사찰인 선암사와 송광사는 한국불교의 동량을 키워내는 수행도량입니다.

해방 후 격동의 세월 속에서 선암사는 미처 정확되지 못한 채 비구-대처간의 분규에 이어 조계종-태고종간의 분규에 휘말리게 되었고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교구 본사로 등록된 이후인지라 그 갈등은 더욱 컸습니다.

갈등이 심화되자 정부에서는 ‘불교재산관리법’에 의거하여 승주군수를 재산관리인에 임명하기에 이르렀고 소유는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로, 점유는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가 하게 되는 조류의 상황이 연출되면서 우리는 재산권자로서의 권한이 제한된 채 40여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역대 주지스님들께서 정상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윽고 지난 2011년 순천시의 재산관리인 해임에 따라 조계종-태고종 양종단이 선암사를 공동 인수하여 관리하기에 이르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양 종단은 선암사의 정보와 부동산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순천시에서 토지소유권자인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동의 없이 건립된 야생차체험관을 무단건축과 사찰의 정서에 맞지 않는 운영을 사유로 철거 소송에 임하게 되었고 2014년 4월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소송 중에 태고종 선암사측은 돌연 피고인 순천시의 보조참가자로 입장을 바꾸며 원고에서 피고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선암사와 순천시와의 소송은 조계종과 태고종단간의 대리전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어렵게 이루어 낸 양종단간의 분규종식 선언도 무색해 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측은 총 44억의 국고가 투입된 시설을 판결에 의한 철거 보다는 조계에 의한 위탁운영을 제안하였으나 순천시의 항소에 따른 소송 고수 입장에 부득이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태고종 선암사에서는 지난 2014년 12월에 대한불교조계종단과 종정예하를 피고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무효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선암사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로 보존등기가 부당하며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는 진중하게 그 간 양종단의 선거 등으로 개최되지 못한 협상재개를 위하여 차기 3월 중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어렵사리 경내에 개설한 종무소에서 선암사의 재산권 보호와 정보 보존 등 선암사를 온전하게 관리하는 일에 매진하는 한편 사찰로서의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법회를 열어 불법을 펼치고, 지역의 복지시설들을 정기적으로 방문 후원하고 있으며, 월보와 홈페이지, SNS 등을 이용하여 선암사를 알려내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선암사엔 할 일들이 많습니다.

선암사를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도난당했던 수많은 문화재들을 환수해야 합니다. 또 지역과 소통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간 미뤘던 소중한 일들이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가 움직이면서 서서히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40여년의 질곡의 역사만큼이나 긴 세월이 걸릴지도 모르는 선암사 정상화 불사는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바로세우는 중차대한 불사입니다. 이 수승한 불사가 원만회향할 수 있도록 종도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산 자락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주지 법원 합장 ☺

시방삼세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

- 선암사 불조전 53불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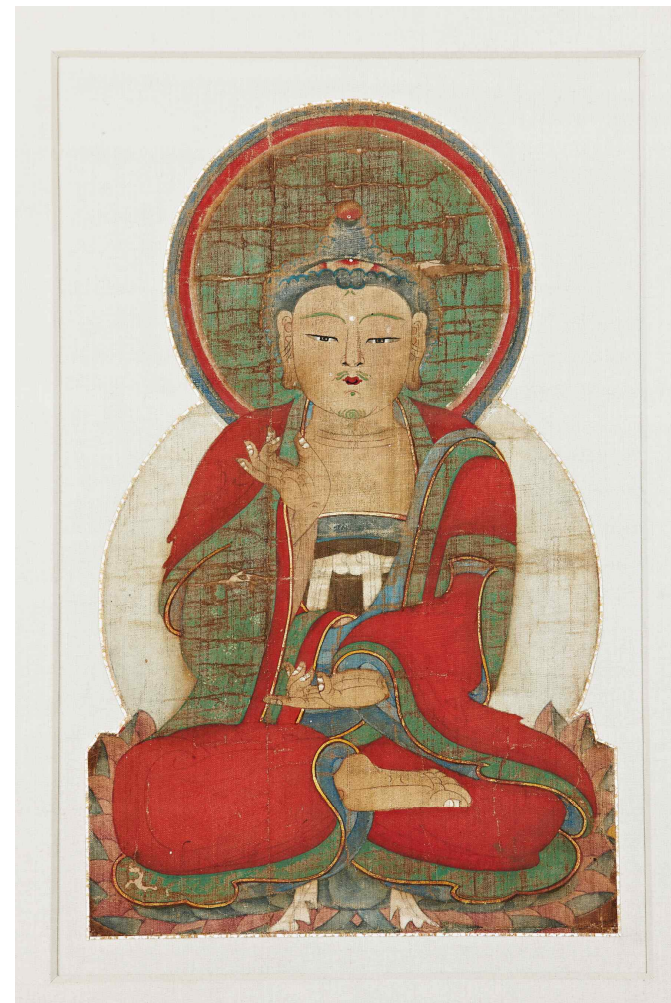
선암사 불조전 53불도

선암사 불조전에 봉안되어 있었던 53불도는 함께 그린 7불도와 함께 60불을 이룬다. 7불도는 중앙에 석가모니부처님을 모시고 좌우에 각각 3불을 그린 것으로 여러 쪽으로 나뉜 이 53불도의 중심 폭이다. 나머지 다른 쪽의 불화는 수평 2단으로 구성되어있다. 매우 희귀한 도상으로 국보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승의 다불사상에서 비롯된 53불의 명호는 『관약왕약상이보살경(觀藥王藥上二菩薩經)』을 통해 각 명칭을 알 수 있다. 일련의 불상은 자세와 수인, 복식 등이 같은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다만 신광의 색을 백색과 양록으로써 교호적으로 배치하여 변화를 주었다.

이 존상들의 비례는 다소 어색하지만 밝고 맑은 색감이 생생하게 유지되어 17세기 조선 불화의 색채감각을 잘 드러내준다.

화사는 사신(思信), 야눌(若訥), 치상(致祥), 취성(就性), 의간(義侃) 등 이다.



지난 2014년 10월 회수된 선암사 불조전 53불도 중 1점

선암사 불조전 53불도는 1998년 2월 6일에 불조전 문살을 잘라내고 침입한 절도범들에 의해 2폭이 도난당했다.

지난해 10월, 불화가 경매에 나온 것을 서울지방경찰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이 현장을 확인하고 도난 문화재를 압수하여 확보하였다. 선암사 불조전 53불도는 안타깝게도 도난 이후 화폭에서 불상을 1구씩 오려내고 배경은 모두 없어진 채 돌아왔다. 이때 압수한 불교문화재는 무려 48점에 이르고 현재 소송을 통한 환수를 위하여 종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

尋 春

봄을 찾다

盡日尋春不見春 하루 종일 봄을 찾아 다녀도 봄을 보지 못하고
芒鞋遍踏隴頭雲 짚신이 다 닳도록 언덕 위의 구름 따라 다녔네.
歸來偶過梅花下 허탕치고 돌아와 우연히 매화나무 밑을 지나는데
春在枝頭已十分 봄은 이미 매화가지 위에 한껏 와 있었네.

鏡虛大禪師



선암사 신도기본교육의 실시

편집실

신도교육체계와 신도품계 제도

교육명	내용	품계명 휘장	자격
입교/발심 품계법회	○ 입교의례 ○ 발심품계 법회 ○ 삼귀의계와 오계 수지		• 종단의 신도 자격 취득 • 사찰 신도회에서 활동
기본교육 부처님 가르침과 신행의 길잡이	○ 기간 : 12시간 이상 1년 이내 ○ 교육기관 : 조계종 등속 사찰 조계종디지털대학 ○ 이수자 : 신도등록 후 기본교육 수료자		• 사찰 신도의 신행을 안내하고 임원으로서의 기본 자격을 지님 • 종단차원의 포상대상
재교육 법회, 신행 교육연수 등	○ 기간 : 3년간 정기적인 사찰 신행활동 ○ 대상 : 기본교육 이수자 ○ 내용 : 사찰에서의 정기법회 사찰에서의 신행생활 사찰에서의 교육 연수 등		• 사찰과 종단의 주요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본 자격
전문교육 전문포교인력 양성 교육	○ 기간 : 1년 96시간 이상 ○ 교육기관 : 종단 인가 불교대학 조계종디지털대학 불교상당대학 대한불교사대학		• 전문교육과정 졸업자 중 부동 품계를 받은 신도님들에 한하여 종단 자격증 응시 자격 부여
지도자 교육 신도 지도인력에 대한 교육	○ 기간 : 포교원 별도 공고 ○ 대상 : 부동 품계 필수자로 사찰에서 추천한 자 ○ 교육기관 : 포교원 ○ 내용 : 지도인력에 대한 교육 검증		• 종단 신도 지도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음

오는 3월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에서 신도기본교육을 실시한다. 신도기본교육의

제 1기는 신도임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일반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제 2기 교육은

오는 3월 7일 입제하여 4월 11일까지 4주간 실시된다.

신도기본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신도 품계 및 교육제도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선암사의 신도 및 신도회가 조계종의 교육 및 조직제도에 부응하여 안착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신도기본교육은 총 12강좌로 실시되며 교재는 대한불교조계종 출판사에서 발간한 ‘불교입문’이다.

강좌는 불자기본예절을 시작으로 기초교리와 불교사, 불교문화 등 불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과 지식을 시작으로 신행생활에 대한 안내까지 폭넓게 꼼꼼하게 구성되었다.

특히 ‘불교사’와 ‘종단의 이해’, ‘선암사의 이해’ 등 세과목은 조계종도로서 또 선암사 신도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선암사의 현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신도기본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대한불교조계종 신도품계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행도(行道)’품계를 수지하게 된다.

행도품계를 수지하게 되면 신도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조계종단의 중앙종무기관이나 소속 사찰의 재가종무원으로서 지원 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된다. 아울러 불교대학 등 전문교육과정에 입학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참고로 신도증은 사찰에 방문하여 입문교육을 받고 삼귀의계를 수지하여 법명을 받은 불자들에게 주어지며 이때 주어지는 품계는 ‘발심(發心)’이다. 또, 행도품계를 수지하고 불교대학에 입학하여 수료하거나 3년간 신행활동을 통한 재교육을 거치게 되면 ‘부동(不動)품계’를 수지하게 된다.

번호	과 목 명	강의 시간	총 강의 시간	담당강사
1	불자기본예절	1	1	법원스님
2	불교의 특징	1	2	법원스님
3	삼보의 이해	1	3	법원스님
4	사찰의 이해	1	4	김 희 철
5	불상과 성보	1	5	김 희 철
6	예불문 해설	1	6	법원스님
7	불교의 역사	1	7	법원스님
8	종단의 이해	1	8	법원스님
9	선암사의 이해	1	9	법원스님
10	신앙과 계율	1	10	진우스님
11	기도와 발원	1	11	진우스님
12	수계, 품서법회	1	12	법원스님

제 2기 선암사 신도기본교육 교과과정

행도품계는 불자로서 본격적인 신행생활의 시작이며, 종도로서 사찰에서 신도나 종무원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발점으로서 의미가 깊다 할 수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는 신도기본교육을 연 2회 봄-가을로 개최할 예정이며 기본교육 수료 후에는 각 기수별 모임을 구성한 다거나 성지순례를 실시한다거나 하여 기수별 조직 강화를 통해 신도조직 및 역량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



불교입문

조계종 신도기본교육 교재 1
2012년 개정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지음
조계종출판사
2011년 12월 23일 출간

주인공(主人公)

지혜 김보현 신도

편집실

어려서부터 불교와 연을 맺고 깊은 불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젊은 여성 불자, 아직은 소녀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은 김보현 불자는 지난 201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남들이 가기 어려운 길은 군문(軍門)에 들어서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나 경쟁이 치열하다는 해군사관학교에서도 신입생 170명 중 여생도는 17명을 뽑는 선발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여 73기 해군사관생도가 되었다.

불보살님과 함께한 유년시절

유년시절 순천 송광사 사하촌에 살면서 송광사 학생회 활동을 했던 김보현 불자는 초등학교 시절 순천시내로 이사를 나오게 되면서 주변에 절에 다니는 친구들이 적어 많이 서운했다고 회고할 정도로 불심이 깊다.

지난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는 고흥 금암사에서 보름간 생활하면서 불심을 키우기도 하였다.

해군사관생도 신입생인 1학년 생도들은 ‘복종’이라는 생활목표를 가지고 상관이나 선배의 명령 및 지시에 절대 복종해야하고, 모든 교육 및 훈련에 긍정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세를 기르는 시기로 통상 바닥-보텀 [bottom]이라 불리는 시기를 겪는데 공동체 생활의 자기통제와 절제를 배우고 화합의 능력을 기르는 시기이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해군사관학교 법당(주지 실원스님)이 인근에 있어 큰 위안이 된다고 한다. 해군사관학교 법당은 올해 졸업생의 절반정도가 수계를 받은 바 있는 활동이 왕성한 곳이기도 하다.

‘꿈은 이루어진다!’

Dreams come true!!!

글쎄요..... 제가 무슨 인터뷰썩이나.... ^^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전 어려서부터 절에 다녔는데 다녔다기보다는 절이 그냥 집 같았었어요. 사찰의 재가종무원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절에 놀러가는 일이 많았고 그 덕에 자연스럽게 어린이법회에도 나가게 되고.....

그런 집안 분위기와 활동이 제가 불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고등학교 시절 담임선생님을 당황하게도 만들기도 했어요. 제가 2학년 때 여름방학 보충수업을 받지 않고 절에 들어가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담임선생님께서 부모님 면담을 요청하셨어요.

당연히 제 계획을 말리실거라고 생각하신 담임선생님은 너무도 당연히 제 의견을 지지하시는 부모님의 입장에 소위 ‘멘붕’에 빠지셨던 거죠. ㅎㅎ.

하여간 그 때 기도를 잘 한 덕인지 시험 결과가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 제가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된 것은 사실 주지스님의 영향이 커요. 경찰대학과 육군사관학교에서 고민을 하던 차에 주지스님께서 해군 법사로서의 경험과 대한민국 해군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결심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 뒤로도 스님께서는 제가 마음 단단히 먹고 공부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해주셨어요.

뭐 제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입장은 아니지만 제 동생이나 후배 불자들에게 한 마디 하자면 ‘꿈은 이루어진다!’이지요.

누구나 꿈을 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막연한 꿈과 희망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전 ‘구체화되고 실천계획이 없는 꿈은 또, 그 계획에 따는 실천이 없는 꿈은 그저 공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숙사에도 또 집에도 목표와 계획을 적은 쪽지를 붙여 놓고 늘 그것을 보며 잊지 않으려, 나태해지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속으로 늘 해군사관학교에 합격해서 대한민국의 해군장교가 되겠다는 다짐을 했던 거였어요. ‘부처님 절 합격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꼭 합격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잘은 모르겠지만 기도도 부처님께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 제 의지를 다지고 확인하는 기도가 더 힘 있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 같았어요.

제 후배들도 자신 있게, 당차게 자기의 꿈을 위해 노력한다면 모두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후배들, 파이팅!!

인터뷰를 하는 동안 연신 선배들과 장교들에게 ‘필승!’하며 경례를 올리는 모습이 군기 바짝 든 신입생이지만 이젠 소녀티를 벗고 당당하게 일어난 자기 삶의 주인공이었다. ☺

지혜 김보현

해군사관학교 73기
송광사 어린이법회



입교식에서(좌로부터) 선암사 주지 법원스님 - 김보현 불자 - 해군사관학교 법당 주지 실원스님

사찰의 구조 2. - 전각(殿閣)

김희철 / 선암사 종무실장

지난 호에서 이야기한 산문(山門) 또는 삼문(三門)이라 불리는 사찰의 문들을 통과 하게 되면, 법당들이 나타난다. 법당들에는 불상이나 불화를 모시게 되는데, 이것을 일컬어 전각(殿閣)이라고 한다. 즉 ‘○○殿’, ‘○○閣’이라고 하는 건물들이 모여서 사찰을 이루게 되는데, 흔히 전(殿)은 각(閣)보다 계위가 높은 건물을 가리킨다. 이처럼 사찰의 구조물들에는 각각 나름의 의미가 있다.

금당? 법당? 강당?

어느 절이나 중심에 부처님을 모신 건물이 있다. 대웅전, 적광전, 원통전, 극락전 등 다양한 이름의 전각들에 불보살님을 모시고 있다.

삼국시대에는 사찰의 중앙에 탑을 세우고 그 주변에 금당(金堂)이라는 건물을 세워 부처님을 모셨는데 ‘1탑3금당식’이니 ‘1탑1금당식’이니 하는 배치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경주의 황룡사지나 익산의 미륵사지 등을 보면 당시의 가람배치와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찰의 중심은 탑이었으나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탑은 목탑에서 규모가 작아진 석탑으로 바뀌고 쌍탑식 가람배치가 전형을 이루면서 금당이 중심이 되었다. 불국사나 감은사지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때 건물들의 배치를 보면 금당(金堂), 강당(講堂), 법당(法堂) 이러한 건물들을 볼 수 있는데 요즘 들어 부처님을 모신 전각을 법당이라는 말로 통칭하는 시대와는 다소 다르다.

과거에는 금당과 법당, 강당의 구분이 명확했는데 살펴보자면 사찰의 중심에 위치하여 부처님을 모신 곳은 금당, 선종에서 법을 설하는 곳이 법당, 교종에서 경을 설하는 곳이 강당이라 한다.

순천 송광사의 예를 보자면 금당은 대웅보전(大雄寶殿), 법당은 설법전(說法殿), 강당은 정혜사(定慧社)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모호해지고 법회 위주로 사찰이 운영되면서 총림급 사찰을 제외하고는 금당과 법당, 강당이 모두 혼합된 운영을 보이는 곳이 대부분이다.



보물 제1311호 선암사 대웅전

부처님을 모신 집 - 불전(佛殿)

전각 중에서 부처님을 모신 곳을 불전이 라고 한다. 고려시대에 이르러서 종파별로 모시는 주불이 달라지면서 금당이라는 통칭 대신 모시고 있는 주불에 따라서 전각의 명칭이 붙게 되었고 중심 불전 외에 부속 전각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통불교적 특징이 나타나면서 전각과 불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도 발생하기도 하였고 가람배치가 많이 매우 복잡하게 되었다.

주불과 전각명칭은 다음과 같다.

석가모니부처님을 모신 전각은,

대웅보전(大雄寶殿), 대웅전(大雄殿), 팔상전(八相殿), 영산전(靈山殿), 나한전(羅漢殿), 응진전(應眞殿) 등이 있고,

비로자나부처님을 모신 전각은,

대적광전(大寂光殿), 적광전(寂光殿), 비로전(毘盧殿), 화엄전(華嚴殿) 등이 있다.

아미타부처님을 모신 전각은,

극락전(極樂殿), 무량수전(無量壽殿), 미타전(彌陀殿)이라고 하며,

약사여래를 모신 전각은 약사전(藥師殿)이라고 한다.

다음 보살(菩薩)을 모신 전각은 보살전이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관세음보살을 모신 관음전(觀音殿), 원통전(圓通殿)이 있고 지장보살을 모신 명부전(冥府殿), 지장전(地藏殿) 등이 있다.

그 외 전각으로는 독성각(獨聖閣), 칠성각(七星閣), 산신각(山神閣), 가람각(伽藍閣), 삼성각(三聖閣), 영각(影閣), 경전이나 경판을 모신 장경각(藏經閣), 판전(版殿) 등이 있기도 한다. ☺

현장 김희철



現)선암사 종무실장
순천대학교 건축공학박사 수료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3급 정학예사-建築史
(사)역사문화연구원 마루 선임연구원

- 2월 행사 소식 -

01. 月刊 仙巖寺 통권 3호 발행

月刊 仙巖寺 통권 3호가 지난 2월28일자로 발행되었습니다. 매 회 페이지가 늘어가면서 불자님들과 보다 많은 소식들을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02. 건조물 문화재 생물피해 모니터링 사업 협의

지난 2월 3일 국립문화재 연구소와 선암사의 목조 및 석조 건조물문화재 생물피해에 대한 모니터링사업 추진 협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찰을 방문하여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우리 선암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03. 설 연휴 선암사 무료입장

지난 설 연휴 기간 중 설 당일과 전날 선암사 주차장과 매표소를 무료로 개방하였습니다. 연휴를 맞아 약 2,500여분이 다녀갔습니다. 매화향기 길은 따뜻한 봄에도 많은 분들이 방문하기를 기원합니다.



04. 선암사 및 향림사 토지 임대계약 실시

매년 선암사와 향림사에서 토지 임대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24일과 26일에 선암사 창파당과 향림사 녹야원에서 각각 임대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임대료 관련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 2015년도부터는 차츰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05. 대한불교조계종 호남6본사 협회의 참석

지난 2월 27일일 광주에서 화엄사 주최로 호남 6본사 협의회(의장 화엄사 주지 영관스님)에 주지스님이 참석하여 선암사의 현황과 정상화를 위한 지역 중도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3월 행사 안내 -

01. 月刊 仙巖寺 통권 4호 발행 예정

月刊 仙巖寺 4월호가 3월 말 발행 예정입니다. 3월호부터 더욱 풍성해진 내용으로 불자님들을 찾아갑시다. 月刊 仙巖寺에서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기뻐할 이야기가 있으면 월간『선암사』 편집실로 연락 바랍니다.

02.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교구종회 참석

오는 3월부터 주지 범원스님께서 마곡사, 송광사, 직할교구 등 본사 교구종회에 참석하여 선암사 정상화에 대한 과정과 노력을 설명하고 본. 말사 주지스님과 신도들에게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선암사 정상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03. 성보박물관 관계자 회의 참석

2015년 문화재관련 경상경비 지원안내와 유물관리 교육 사업 안내에 관한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선암사에서도 참석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인 성보를 여법하게 보존관리 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04. 정월 방생법회 및 성지순례로 선암사 방문 예정

정월을 맞아 부천 보림사, 안성 서용사, 경기 봉인사, 부산 관룡사 등 여러 사찰에서 선암사로 방생법회 및 성지순례를 다녀갈 예정입니다. 미리 연락 주시면 해설사 지원 및 무료입장 등 순례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불기 2559년 3월 신춘법회 안내

꽃피는 춘삼월 불자님들과 함께 조계산을 오르고
가족들과 신도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며
활기차게 새 봄을 맞이하려 합니다.
봄 내음 가득한 조계산으로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불기 2559년 3월 신춘법회

일 시 불기 2559(2015)년 3월 14일(토)
오전 11시
장 소 조계산 일원
대 상 선암사 신도 및 가족, 지인 누구나
동참금 1만원



- 사랑방 이야기 -

01. 김성춘 신도 아파트 관리소장 취임

공인중개사인 김성춘 신도가 지난 2월 광양 태완노블리안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부동산과 주택관리의 달인인 김성춘 신도의 새로운 출발에 힘찬 박수를 보내며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02. 김희선 신도 화축

건축사사무소 '시인공간'에서 근무 중인 김희선 신도가 오는 3월 7일(토) 오후 3시 순천 아네스 웨딩컨벤션 아네스홀에서 신랑 박대웅씨와 화축을 밝힙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두 분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03. 김경식 신도 교관양성교육 참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김경식 신도가 지난 1월에 이어 3월에도 교육에 참가합니다. 재난대응 교수교원 교육을 마치고 이번에는 소방안전교육사 교관양성교육에 참가합니다. 보다 강화된 역량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계신 신도님의 노력에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01.



02.



03.

- 선암사 성지순례 안내 -

조계산 자락에 위치한 천년고찰 선암사는 우리나라 전통 불교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선암사를 참배하시고 무량한 복덕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 문 의 처 :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종무소
- 주 소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죽학리 802)
- 전화/팩스 : 061-725-5108 / 061-753-5108
- 전자메일 : tnrf14@hanmail.net

- 선암사 제 2기 신도기본교육 신입생 모집 -

매화 향기 그윽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에서 불교의 세계에 입문하는 불자들을 위하여 신도 기본교육을 실시합니다. 바른 신행과 교육을 통하여 참다운 불자로 거듭나고자 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입 제 식 : 3월 7일
- 수 업 일 : 3월 20일부터 4월 11일. 4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접수마감 : 2015년 3월 20일
- 강 사 진
기초교리 : 주지 법원스님
불교문화 : 김희철 종무실장
신행과 계율 : 진우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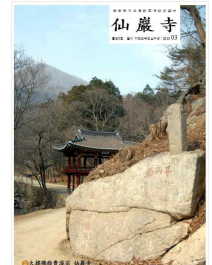
- 접수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종무소
전화 : 061-725-5108 / 팩스 : 061-753-5108
- 접수계좌 : 농협 301-0128-6618-31 /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 동 참 금 : 10만원
- 접 수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선암사 신도기본교육 담당자
gs250man@hanmail.net

※ 본 교육을 이수하신 신도님들께는 '행도(行道)' 품계가 부여되며 종법에 따라 특전이 주어집니다.

- 월간 『仙巖寺』 정기구독 신청 안내 -

- 월간 『선암사』가 정기구독 회원을 모집합니다.
- 정기구독 회원이 되시면 매월 가정과 직장에서 월간 『선암사』를 편안하게 받아보시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 문 의 월간 선암사 편집실
전화 : 061-725-5108 / 팩스 : 061-753-5108
- 계 좌 농협 301-0128-6618-31 /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 구독료 3만원/1년



오천년의 역사를 다음 오천년까지....

(주)해성문화재보존이 함께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처리 / 유물보존환경 관리 / 유해해충 방제

해성 (주)해성문화재보존
문화재보존수리 / 온증소독

● 전남 순천시 서면 백강로 721
● 전화 : 061-753-2900 ● 팩스 : 061-753-2912